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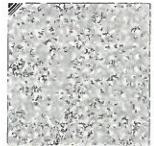
시울주보

제2357호 2021년 9월 12일(나해)

연중 제24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기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집회 36,21-22 참조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1독서 | 이사 50,5-9

화답송 | 시편 116(114-115),1-2.3-4.5-6.8-9(◎ 9)

-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
-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 주소서.” ◎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

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제2독서 | 야고 2,14-18

복음환호송 | 갈라 6,14 참조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께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음 | 마르 8,27-35

영성체송 | 시편 36(35),8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르 8,29)



유승록 라우렌시오 신부 | 등촌1동성당 주임 겸 17지구장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열두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 사도의 대답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보존하며 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전해 받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은 신앙인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잊지 않고 여기에 답하려 노력한다면 분명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교리 또는 신앙 서적을 통해 익힌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차원에서 멈춘다면 무언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진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전달된 진리를 입으로만 반복하고 그 진리를 삶과는 유리된 죽은 활자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의 진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 공동체가

체험한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체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복음의 예수님 질문에 진정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듯이 예수님은 수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을 거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도 늘 승리와 영광의 꽃길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다른 종교를 택할 자유가 있는데 내가 여전히 천주교 신앙인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고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이 반복되는 일상에 젖어 멋밋하거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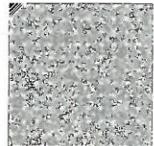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34)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제주도 귀양길에 오른 그의 아내 정난주 마리이는 두 달배기 펫덩어리 아들 황경한을 살리기 위하여 추자도 갯바위에 내려둔 채 귀양살이를 하여 모자는 생전에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후세에 이를 안타까워하여 그 갯바위에 ‘황경한의 눈물’이라 명명한 십자가를 두었습니다. 주님, 부디 모자가 천상에서 기쁜 만남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정영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 가톨릭사진가회



연약하고 아름다운



송희준 아델라 | 배우

성당에서 기도했던 그 날 이후 저는 수녀님의 안내로 예비 신자가 되었고, 어느 가을 아델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고 작은 쪽배를 넓은 바다에 띄웠습니다. 저는 이제 아델라로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한 번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침대에 누워 눈 감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 영원한 것들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삶이 제대로 밭을 딛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엔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또 한없이 부풀어 오르며 들뜨는 것 같을 때엔 정신 없이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제 마음의 추를 계속해서 더하고 떨어내며 원점으로 돌려놓는 힘이 됩니다. 미약한 신앙의 새내기이지만, 기도 안에 머물 때면 나와 세상과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어떻게 삶을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신자가 아니었던 학생 때에도 낯선 땅으로 여행을 떠나면 성당을 찾아가 보곤 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설 때면 창문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스며드는 빛의 조각들과 그 고요함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하얀 미사보 속에 마련한 작은 방에서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서로 다정히 손을 맞잡은 채 머물고, 또 누군가는 가만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당이라는 공간은 제게 조용하고 단정한, 슬픔과 기쁨에 찬 생명력이 동시에 머금어진, 복합적인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때의 저는 성당의 공간이 주는 이 고요한 아름다움에 이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안의 일부가 되어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사랑하는 소중한 저의 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홀로 시작한 신앙의 짓이 쉽게 접혀버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들여다봐주시며 가까이서 함께해 주십니다. 더욱더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님을 대모님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나온 제 마음들을 돌아보면, 신앙은 의구심이 없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강건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고, 내 자신이 작고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보고 듣고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에게 신앙이란, 제 믿음의 작은 쪽배와 이 여정에 함께하는 여러 둑단배들을 조금의 아낌도 없이 사랑하고 지켜가며 떠나는 긴 항해입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바다를 덮는 물처럼
여호수님을 양으로 깨끗한
(마사 11:7)

강재은 벨라벳다
발산동성당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❶ 성물을 중고로 팔면 안 된다고 했는데, 축복받은 집,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지만, 축복받을 수 있는 물건들도 특성에 따라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측면에 기인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집이나 자동차의 축복을 볼까요? 축복예식서에는 집이나 자동차 말고도 축복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더욱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장, 사무실, 상점은 물론 체육관, 운동장도 포함되어 있고, 특수 기술 설비, 생업 관련 기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이나 논밭, 목장, 핫곡식 봉헌 때 받는 축복도 있지요. 이 모든 축복은 하느님의 은총이 깃들길 청하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가령,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축복받을 때 가장 주요하게 지향하는 바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청하는 것이죠.

반면, 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축복을 청하는 물들도 있습니다. 전례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대표적인데, 공적인 경배를 목적으로 하는 십자가나 성화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의 길 14처나 미사 도구같이 성전에 비치되는 전례 용품들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에 축복을 받을 때는 더이상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길 청원하고,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길 청했던 물건들은 언젠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 반면, 이런 도구들은 축복을 통해 완전히 세속적 용도와는 구분되므로, 축복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축복을 받으면 값을 매겨 세속적인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며, 성물방에서 축복받기 전의 물건들만 판매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축복받은 집, 자동차 등 앞선 부류의 물품들은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안전하게 잘 사용하길 기도하며 판매하면 좋겠습니다.

❷ 고친 성물을 다시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성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성전도 언젠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리모델링한 성전에서 다시금 축성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여러분의 경험에 이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주의 끈이 떨어진 정도의 파손이라면 고쳐서 다시 축복받고 써도 됩니다.

성물을 고치고 다시 축복을 받는 것은 해당 성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여러분을 향한 사제의 지지와 격려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제는 성물을 축복하며 해당 성물을 식별하기도 합니다. 가령, 묵주에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전통에 위배되는 상징물이 달려 있다던가, 묵주의 구성이 10알씩 이어나가는 전통적인 구성과 완전히 다르다면 축복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제에게 성물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확인이자, 지지와 격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물 축복을 계기로 사제들을 더 자주 만나며 신앙 안에서의 일치와 친교를 누리시길 권고드려 봅니다.

단, 이때 축복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축복이 중첩되어 효과가 누적된다는 식의 생각은 곤란하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명의 사제에게 축복을 거듭 받는다고 은총이 배가되지는 않습니다. 축복의 은총은 결국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성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축복을 여러 차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교리문고답하기는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양주얼 베드로 신부님께서 자문해주신 내용에 따라 짚짚되었습니다.

9월 19일(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일입니다

인사발령 정정(8월 26일 자)

성명	전임지	새임지
이광희 신부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사목회관 관장	해외선교
유상혁 신부	역삼동 본당 부주임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사목회관 관장

위원회 위원 임면(8월 26일 자)

1. 경찰사목위원회

임) 중서울 박준병 신부 (서부경찰서) 면) 진 강 신부

인사발령(9월 2일 자)

성명	전임지	새임지
최일광 신부	도봉동 본당 주임	휴양

교구청일정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갤러리1898 특별기획전: 전관
'영혼의 벗, 김대건·최양업을 만나다'
전시일정: 9월4일(토)~16일(목)

1287차 민족의 회복과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9월1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안주 본당, 정주 본당
유튜브 통해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오후 7시(유튜브→'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명동, 거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때: 12월24일(금)~26일(일) /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품목: 수공예·성물, 공예품, 성탄 관련 물품 등
9월18일까지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접수
작품 이미지와 설명, 가격대, 작가 소개 포함

온라인 구역반장학교

대상: 구역장·반장 /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때: 10월1일(금)~11월30일(화)
회비: 2만원(9월28일 미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제31회 한국 가톨릭 매스컵대상 공모

부문: ①신문, 출판 ②영화, TV ③라디오, 인터넷 ④교구, 수도회 / 대상: 2020년 11월1일~2021년 10월15일 사이 발표된 작품
접수: 10월15일까지 우편, 이메일(mscm@cbck.kr) 접수
문의: 02)460-762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 http://www.cbck.or.kr 참조

순례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愛 동행’

1) 청소년, 청년 순례길로!

대상: 만 16세~38세 청소년, 청년
참여방법: ‘서울순례길’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이벤트 참여, 천주교 서울순례길 순례하며 인증샷 남기고 응모하기 / 9월26일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 후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드립니다

2) 온라인 기부 동참하기 안내

지정구입처 11곳에서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하시면, 순례자여권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구입이 어려우신 순례자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기부금(세트당 8,000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 문의: 02)2269-0413

교구 내 성지 개발을 위한 특별헌금

우리 교구는 2011년도 ‘순교자 성월’부터 ‘중림동 약현 성당과 서소문 순교성지 개발 보존’을 위한 특별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일(9월 19일)에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3년 9월 19일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37세)
- 1950년 9월 17일 이재현 요셉 신부(41세)*
- 1950년 9월 17일 정진구 마티아 신부(30세)*
- 1950년 9월 17일 백남창 아가뻬도 신부(30세)*
- 1991년 9월 14일 김덕제 치릴로 신부(64세)
- 2001년 9월 18일 임충신 마티아 신부(94세)
- 2003년 9월 18일 임세빈 요셉 신부(90세)

* 1950년 9월 17일 선종하신 신부님들은 근현대 신앙의 중인들로 한국 전쟁 중 순교한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공개대학(열린학당)

주제: 한국교회의 시작과 신앙공동체의 모습
때: 9월30일 개강미사 매주(목) 19시~20시, 12월2일 종강미사 / 회비: 6만원(비대면시 무료)
곳: 종로성당 강당 / 50명 선착순
문의(접수): 02)756-1691(내선1)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 가능

2022학년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화요일아침예술학교’는 가정환경으로 인해 미술에 대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과 미술심화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입니다
모집인원: 미술계열 1학급, 여학생 13명
지원자격: 미술에 재능이 있는 어려운 환경의 중학교 졸업예정(검정고시합격)자
원서접수: 10월11일(월)~11월1일(월)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031)832-9988 행정실
홈페이지: www.flowerdaymorning.com

2022년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안내

1월~6월: 9월24일(금) 14시, 대성당

(오후 1시 대성당 입구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12월: 2022년 1월~2월 중 추첨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11시 · 14시 · 16시
	공휴일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계좌이체·카드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주보 ‘작은마음’ 온라인 전시회

주제: 온누리에 주님 사랑 전하려 가요
내용: 서울대교구 초등부 어린이의 그림
마감: 10월22일(금) 오후 6시까지 / 02)763-7966
청소년국 초등부 홈페이지(www.chota.or.kr)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온라인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 2) 서울대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학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제39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온라인 교육

대상: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공부하고 활동할 신자, 수도자, 성직자 / 방법: 온라인(Zoom으로 진행), 강의, 나눔, 과제(녹화영상 강의 시청 등)
때: 9월28일~11월23일 매주(화) 19시~21시(총 9회)
신청 방법 및 인원: 9월17일(금)까지 선착순 80명(웹사이트(www.ecocatholic.org) 내 생태영성학교 신청 및 입학원서 다운받아 작성, 이메일(ecocatholic@hanmail.net)로 제출 필수) / 문의: 02)727-2283, 2272(회비: 5만원)

9월28일	과학 ‘잔디밭으로서’ 서문 / 이승원 신부(서울교구 청년기금 담당본부장)
10월5일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임미정 수녀(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가톨릭기후개동 공동대표)
10월12일	창조의 복음 / 백종연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10월19일	생태 위기의 근원들, 통합 생태론 / 박동호 신부(이문동성당 주임,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10월26일	접근법과 행동 방식 / 황인철 팀장(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11월2일	생태 교육과 영성 / 조경자 수녀(노들암수녀회, 노틀란 생태성당 담당 대표)
11월9일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본당 활동 / 홍태희 신부(성당도서관장·환경그룹)
11월16일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 이재돈 신부(대치동 광장 주임, 가톨릭대 천성교수)
11월23일	총정리 및 수료미사 / 교육생과 사제단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인증단체 알림

모임

고통의 성모 묵상 피정

때, 곳: 9월27일(월) 10시~13시, 가톨릭회관(명동) 7층
문의: 010-9620-4820 마리아학교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때: 10월7일·14일·21일·28일(목) 14시~17시 / 회비: 10만원
곳: 씨튼영성센터(서울) / 지도: 허성준 신부(외)
문의(접수): 010-4731-2468 최안나(에관성베네딕도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문의: 010-9916-5798 토마스모어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때, 곳: 9월24일(금)~27일(월), 도미니코 수도원

제주 면령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성지순례 피정: 9월25일~28일, 10월2일~5일, 10월15일~18일, 11월6일~9일, 11월14일~17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3차 9월17일(금)~25일(토) 문의: 061)373-3001,
제94차 10월15일(금)~23일(토) 010-3540-9001

어르신 사찰 피정 '죽음—웰다잉(선종)' 강의 · 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02)766-7370

죽음(선종) 9월28일(화) 10시~13시

심판 지목 연우 천국 성체 성모님 매월셋째주(화) 10시~13시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충북 1위, 신입생 전
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 원서접수: 9월10일(금)~14일(화)
모집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의: 043)270-0100~0102

예수회 특별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

강의주제: ①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회심 500주년·회고와 전망 ②영산수련을 꿰뚫는 핵심 '겸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③실천적 영성생활 ④구약성경의 크고 작은 신(神)들 과이스라엘의 독특한 믿음 등 / 강의: 유성모 신부, 주원준 박사 및 예수회사제 김영훈·김형철·신원식·이구성·권오면
현장 강의: 9월14일 개강, 매월 둘째·넷째주(화) 오전 10시~12시(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동영상 강의: 링크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그리스도인 성장의 길—목요신학강좌(한국CLC)

때: 10월21일~11월25일 매주(목) 19시30분(6주)
곳: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회비: 대면 8만원·비대면 6만원 / 문의(접수): 02)333-9898

10월21일	회칙 '모든 형제들'로 세상 보기	박동호 신부
10월28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이재운 신부
11월4일	현대 세계에서의 영적 자유	전주희 수사
11월11일	사회적 영성·기인적 영성을 넘어	정경일 박사
11월18일	사회적 모성 리더십	강영옥 박사
11월25일	세상 속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식별	현재우 박사

모집

제8회 가톨릭영화제 지원활동가 모집

모집분야: 행사 진행(영화제 기간, 자막번역·감수(사전)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9월15일(수),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9월13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3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서울 후원회 미사 / 내용: 성시간, 묵주기도, 미사
모든 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자만 참석 가능
때, 곳: 9월17일(금) 10시~13시, 가톨릭회관(명동)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코로나19 대응 위해 인원제한: 접수 필수

성모님 발현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9월13일(월) 오전 10시~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인내

꼬메스영성상담소

치유와 성장이 있는 동행. 심리상담, 영성상담, 전화상담(주1회) /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가톨릭회관 사무실 임대

회관 내 사무실 임대공간의 정리로 인하여 공
실이 된 사무실을 수도회와 교회 단체에 임대
합니다 / 문의: 02)727-2304 가톨릭회관 관리실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벨자비의수녀회)

제107회 언택트 가톨릭독서콘서트

주제: 닉터 김용민의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
작가: 김용민(국정없는의사회 활동가)
때, 곳: 9월23일(목) 오후 8시, 청담동성당 대성전
(비대면) / 문의: 02)3447-0750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아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자기답게 살기'를 듣는 수지에너지프로그램	상시
의식성장을 위한 내면아이 작업	상시
스트레스 해소와 내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한 명상 치료	상시

직원모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직원 모집

분야: 사무직 0명, 노무직 0명(조리 0명, 경비 0명), 전교기구 0명 / 10월29일(금) 14시 접수 서류까지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mano@cbck.kr)·전교기구(pmsk@pmsk.net)

성수동성당 방호원·주방근무자 모집

분야: 주간 방호원 1명·주방근무자 1명 / 계약직
업무: 시설관리, 청소, 미화 업무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시까
지 사무실 방문·우편(우편우 04774,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23
성수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kyeon@seoul.catholic.kr) 접수
제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9월18일(토) 14시
한국외방선교회	10월30일(일) 11시

수도원(개화동)
본부(성북동)

010-3800-1579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소년 김대건**

최은순 지음
마루비 | 128쪽 | 1만2천원
문의: 02)749-0194

소년 재복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제가 되기까지의 김대건 신부님의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성장기를 그려 낸 감동의 청작동화이다. 이 책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엄혹한 시절, 자신의 신념을 향해 두려움과 맞서며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김대건 신부의 어린 시절을 재탄생시켰다.

**신간****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체포와 순교**

김대건 지음
한국교회사연구소 | 400쪽 | 2만원
문의: 02)756-1691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자료집 제3집은 체포와 문초, 판결, 순교 그리고 시복 재판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원문을 첨부한 희년 기념 개정판이다. 부록으로 성 김제준 이냐시오 관련 기록, 김대건 신부 유해 이장 기록 및 흉상 복원 사진 등이 실려 있다.

**기도****cpbcTV 수험생을 위한 54일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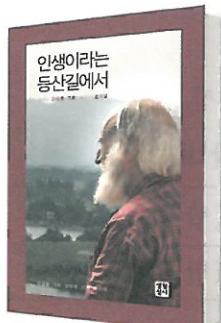
때: 9월 26일(일) ~ 11월 18일(목)까지(54일간)
수험생을 위한 54일기도 방송시간:
매일 21시, TV매일 미사 후 이어서 54일기도
수험생 미사자향 신청: 가톨릭평화봉승 홈페이지
및 전화신청: 1588-2597 / 9월 15일(수)까지 마감

cpbc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수능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 27일간의 청원 기도와 27일간의 감사 기도, 총 54일 기도 여정에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한다.

**신간****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활동과 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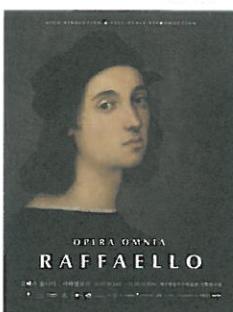
김대건 지음
한국교회사연구소 | 408쪽 | 2만원
문의: 02)756-1691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 자료집 제2집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활동과 업적'은 김대건의 신학생 시기에 그와 함께 생활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한 및 여타 자료에서 김대건 신부 관련 내용을 발췌·번역한 희년 기념 개정판이다.

**신간****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안셀름 그륀 지음
생활성서사 | 256쪽 | 1만3천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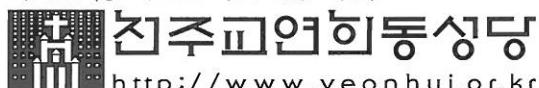
일상과 신앙의 여정을 풀어내는 산행 에세이다. 우리는 인생을 때로는 등산에 비유하기도 한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공을 들여 정상에 도착하고 나서, 혹은 불가피하게 다시 뒤돌아 내려와야 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래프로 표현한 삶의 곡선과 묘하게 닮아 있음을 본다.

**전시****오페라 옴니아 라파엘로 展**

관람시간: 9시~18시 / 입장마감 17시
입장료: 성인 1만원, 청소년 7천원, 어린이 5천원, 24개월 미만 미취학아동 무료
문의: 02)3446-954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침시 주보 1부로 4명 50% 할인

오페라 옴니아는 전 세계 박물관에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는 거장들의 회화 걸작들을 재현한 프로젝트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화가 라파엘로의 대표작들을 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10월 31일까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제2195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종)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 토요일 :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10일(화)~11월 17일(수)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7752-4976)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주일학교 개학미사

중고등부·반디 : 9월 11일(토) 10시 30분

초등부 : 9월 11일(토) 15시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9월 14일 (화) 오전 10시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안내

9월 21일(화) 한가위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9월 22일(수)	미사 없습니다.(사무실휴무)

연도 : 오전 6시미사 (미사후에 연도 바랍니다.)

오전 9시/11시미사 (미사전에 연도 바랍니다.)

※ 한가위 합동위령 미사 참례 예약 신청

일시 : 9월 15일 (수) (오전 9시~오후5시까지)

방법 :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한가위 합동위령 미사지향 신청

일시 : 9월 19일 (주일) 까지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9. 5)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208	825	1,383	45.2%	42.0%	37.4	35.6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리모델링 2차현금이 있습니다.

◎ 리모델링 기금 (8월 30일~9월 5일)

익명 일백만원
누계 914,612,861원

◎ 감사현금 (8월 30일~9월 5일)

박명숙	시만원	정수진	칠만원
김경호	오만원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익명	삼십이만원	김영중	일십만원
김성태	일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박유순	사만원	윤영자	이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한동현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3주일)

교무금	14,925,000원
주일 현금	3,241,500원
리모델링 2차 현금	1,593,000원